



# 일본 전자부품의 하반기 경기동향

## 조사부

### 1. 개 요

전자부품의 수요는 작년봄 이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반도체, 액정을 중심으로 한 전자디바이스는 납기에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어 접속, 변환, 회로 등의 일반부품도 PC주변기기, 이동체 통신기, 나아가 AV(음향, 영상)기기의 ASEAN·중국지역에 있어서의 생산증가를 반영하여 국내를 포함해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7월경부터 국내외에 있어서의 일부 세트의 재고증가(생

산과잉)에 의해 부품발주에 조정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어 초가을 이후의 수급전망을 근거로 하반기의 부품경기동향을 조사하였다.

### 2.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는 세계적으로 호조인 PC용 수요를 중심으로, PC 주변기기나 이동체통신, 게임기기용이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4M/16M비트 DRAM, ASIC(특수용도 IC)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다.

WSTS(세계 반도체 시장통계)

에 의하면, 세계 반도체시장은 '94년에 1천억불을 돌파하고, '95년도에도 39.7% 증가한 1천423억불이 전망되고 있다. 통산성 통계에 의하면, 반도체의 국내생산액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증가에 의해 금년 1~5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반도체소자 및 반도체 집적회로)로 대폭적인 신장을 계속하고 있다. 금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북미나 유럽에 수출하는 AV기기용 반도체에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수요 전체의 증가기조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고, 「반도체 시장」은 내년까지 호조상태가

계속된다」고 업계관계자는 보고 있다.

반도체시장의 견인차는 뛰니뛰니해도 PC시장의 확대로 금년에 세계에서 6천만대를 초과하는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만도 500만대로 전년실적을 200만대 가까이나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만간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윈도우 95도 수요확대를 자극하는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펜티엄과 윈도우 95의 조합에 의한 PC 1대당 메인 메모리 實사용량은 '95년에 24MB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94년의 평균적인 펜티엄 탑재 PC(윈도우 3.1)의 메모리 사용량의 2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PC용 DRAM 수요만으로도 4M비트 DRAM 환산으로 '95년에는 전년에 비해 7할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펜티엄에서는 캐쉬메모리로써 고속 SRAM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1M환산으로 1억개 가까운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는 '95년의 전자 디바이스 생산전망을 작년말에서 정리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반도체소자 4.2% 증가, 반도체 집적회로 7.8% 증가로 예측하였으나, 세계적인 PC수요가 이동체통신기기 수요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신장으로 추이하고 있는 점도 있어, 1~5월의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95년 1월

이후의 생산액의 신장은 10% 이상의 2자리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6월의 속보치를 보아도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로, 설비 투자효과도 있어 더욱 늘고 있다. 이러한 신장의 원동력이 되고있는 것은 것은 1~5월의 생산액에서 DRAM이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 마이크로 컨트롤러(MCU)가 동 37.5% 증가로 30% 대의 신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하반기의 전망에 대해서도 「중래의 기조로 커다란 변화는 없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AV기기용의 마이콤, 가정용 IC는 세트의 재고증가 등에 의해 일부에서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어, 6~7월의 신장수준은 전년실적을 하회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신장률은 둔화하고 있다. 단, 마이콤은 AV기기용의 신장 둔화를 HDD나 CD-ROM 등 컴퓨터 주변기기용의 증가로 커버하고 있다.

수급균형의 개선을 위해 주요 반도체 각사는 설비투자를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 반도체 메이커 11개사는 합계로 9,370억 엔의 설비투자를 하반기 초기에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미 NEC가 300억 엔, 도시바가 200억 엔, 산요전기가 70억 엔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1조엔을 초과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수요는 강세로 추이하고 있다.

한편, 롬에서는 반도체가 PC주

변기기, 이동체통신기기용의 수요가 증대해 디스크리트도 AV기기용, 자동차용, 이동체통신기기용의 수요가 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룹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장이 증추절 전후의 4~5일간의 휴가를 반납하고 생산에 임하고 있다.

### 3. 표시소자

액정 디스플레이(LCD)와 브라운관(CRT)으로 대표되는 표시소자는 최근 그 동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LCD의 생산액은 '94년도에 5,570억엔으로 '91년에 비해 배나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대해 금년에도 30% 가까이 신장이 예상되고 있었으나, 4월이후 전년동월대비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트형 PC에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일부 메이커에서 재고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급격한 가격하락이 그 요인으로 보여져 하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한편, CRT는 PC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나 칼라 TV수요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1~5월의 생산액도 전년동기대비 8.2% 증가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LCD의 생산액은 '91년에 2,550억엔, '92년에 3,263억엔, '93년에 4,221억엔, '94년에 5,574억엔으로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노트형 PC에 채용된 TFT(박형 트랜지스터) 칼라 LCD로, 최근에는 SFN(초비트네마틱) 칼라 LCDS 화질의 향상과 TFT칼라 LCD의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가격 메리트에 의해 노트형 PC에의 탑재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PC업체가 저가격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STN칼라 LCD의 가격 우위성이 구체적으로 수요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PC용 LCD의 수요 증가에 따라, TFT칼라 LCD, STN칼라 LCD메이커는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전개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작년말에는 TFT칼라 LCD만으로도 연간 600만배 규모(10인치 환산)에 달하고 STN칼라 LCD메이커도 거의 동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LCD동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노트형 PC는 최근 CD-ROM 내장의 멀티미디어 PC에 밀려 신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고성능 CPU에의 이행과 표시화면 사이즈의 변화 등에 의해, PC의 신제품 투입 사이클도 빨라져 일부 메이커에서는 노트형 PC의 재고조정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PC의 저가격 전략 바람과 일부 LCD의 과잉생산이 표면화 함으로써 LCD의 가격도 급격히 하락해 현재 일부에서는 TFT칼라 LCD가 6만 엔대에 들어가 있다. 「'95년도 중에는 당초 목표로 하고 있던 5만 엔대를 달성하고 싶다」고 하는 업계의 목

소리도 있어, 가격하락과 노트형 PC의 신장을 둔화가 4월이후의 LCD의 생산액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금년의 노트형 PC 수요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한 폭이 있는데, 대형 LCD메이커에서는 「순PC 수요의 21%가 노트형PC」라고 보고 1,200만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900만대 정도의 전망도 있다.

또한 「TFT칼라 LCD가 5만 엔대에 다가가면 노트형 PC에서 약 절반을 점하고 있는 STN칼라 LCD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지만, 금액베이스에서는 1자리 정도의 신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흡유스와 개인사업가 등의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PC용에 CRT 디스플레이 모니터 수요가 증대하여 생산액은 1~5월까지 7.7% 증가를 보였고, 생산액은 5월에만 23.8% 증가로 크게 신장하였다.

CRT메이커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생산을 우선하는 방향에 있는 바, CRT 전체로서는 해외에서의 생산이전 등으로 국내생산액은 전년실적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하반기에도 수요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2자리 가까이 신장될 것 같다.

CRT 디스플레이는 PC, 와이드 TV 등의 수요가 증대해 각사 모두 공급에 쫓기고 있는데, 8월 하순에는 마쓰시다 전기공업의 스크

린 웨이스가 완전히 Plat한 17인치 퓨어플랫 디스플레이 칼라관의 양산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4. 변환부품

양산면에서 AV(음향·영상)기기의 생산동향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헤드 소형 모니터 등의 변환부품 분야이다.

그 AV기기의 생산이 최근에 와서 생산조정 국면을 맞아 관련 부품에 대한 발주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어느 대형메이커에 의하면, 「6월경부터 조짐이 나타나 7월에 들어서서는 그것이 수주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 메이커의 7월 당월의 수주실적은 6월에 비하면 약20%(금액 베이스)의 하락을 기록하여, 「아직, 전년수준은 다소 상회하고 있지만, 9월이후 얼마동안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하긴, 이번 부품 수주 수준의 저하원인은 실은 대단히 명확하여 각 메이커의 견해도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변환부품의 수주확대를 리드해 온 AV기기의 생산수준이 ASEAN·중국지역에 있어서의 일본계 메이커를 비롯하여 대단히 높았으며 또 그 수준이 약 1년반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이다.

실제로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대

비 30% 증가를 보였고, 이 중에는 50% 증가를 초과하는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납기대응에 쫓긴 변환부품메이커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계나 한국, 대만, 홍콩 등의 AV기기 메이커가 저가격품을 중심으로 일제히 증산공세를 펼친데도 원인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수요)의 실태를 무시한 “과잉생산”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시장에서도 제품재고가 늘어나고 그 반동으로써 최근의 세트메이커의 생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느모터 메이커에서는 「금년도 전반기는 2자리 성장으로 계획대로 매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을 이후의 수주를 예상하면 후반기는 전년실적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다른 메이커에서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10~20%의 수주감소를 각오하는 편이 좋으며, 특히 저가격대의 라디오 카세트 관계는 조정의 폭이 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VTR이나 미니컴포넌트 관계는 세트메이커에 의해 상당히 조정폭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CD 플레이어 관계는 자동차용을 포함하면 아직 그다지 침체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AV기기용의 수주 수준이 급락하고 있는 한편, PC·주변장치용은 여전히 저조해 아직 눈에 띄는 조정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헤드, 모니터 메이커 모두 당면한 AV기기 시장

에서의 침체를 정보기기 분야에서 커버하려고 하는 의향이 강하다. 하지만 변환부품분야는 세트메이커의 동향에 따라, 해외생산 비율이 이미 상당한 곳까지 와 있어 금후 코스트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욱 그 비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환부품의 국내생산액은 작년에 전년 대비 약 9%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이행이 진행되어 1~5월의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94년의 국내생산액은 피크였던 '91년에 비하면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단, 이번의 조정국면이 장기화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각 메이커 모두 「반년 정도에 그칠 것이다.

AV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ASEAN 등의 현지 수요는 잠재적으로 강한 면이 있어 시장의 재고 과잉이 해소되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수요는 회복세로 돌아서 발주 수준이 금년 전반기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고 의외로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부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외의 크리스마스, 연말 상품전의 동향에도 좌우되지만, 빠르면 내년초에 서서히, 늦어도 3, 4월경 부터는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 5. 접속부품

통신성 통계에서의 접속부품으로써는 콘넥터, 스위치, 릴레이, 프린트, 배선판의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공업회의 '95년 예상에서는 전년 대비 0.7% 증가(생산액)로 보고 있었으나, 금년 1~5월까지의 5개월간의 누계실적(국내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라는 2자리 성장을 보여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령 후반에 침체된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10% 전후의 신장을 확보는 이들 4개 부품의 수주전망으로 추정하여 볼 때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신장율이 높은 콘넥터와 해외생산 이전의 영향이 큰 스위치에 대해 하반기를 전망해 보기로 하겠다.

콘넥터의 5월까지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2%가 증가하였고, 5월만을 보아도 전년동월 대비 19.2%의 증가를 보여 대단히 호조를 띄고 있다.

지난달 중순 전파신문사가 주요 콘넥터 메이커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 후반의 국내수요예측」에서도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회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전하였고, 각사의 콘넥터 부문의 금년도 매상고 계획은 전년실적에 비해 평균 13.2% 증가하여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호조의 요인은 콘넥터·주변장치와 이동체 통신기의 생산

증가 그리고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금년은 오래간만에 국내시장이 활황을 보여, PC와 휴대전화, PHS가 콘넥터 수요를 리드하고, 여기에 FA 관련의 회복과 수출증가도 플러스로 작용하였다」고 대형콘넥터 메이커의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수출증가는 PC주변장치, 이동체통신기의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생산증가에 의한 바가 크며, 아직 다른 부품에 비해 해외 생산 비율이 낮고 해외 생산 법인의 백업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계를 포함해 각사 모두 수출에 대해서는 30% 전후로 높은 신장이 계속되고 있다.

콘넥터 상사인 코오노는 PHS를 비롯한 휴대전화, 전화기용 충전기, PC등의 정보통신분야용의 콘넥터가 전반기에 이어 큰 폭으로 매상을 올리고, 민생기기용 콘넥타도 전년을 상회해 자동차용, 오락용의 침체를 커버해 줌으로써 제 1/4분기의 콘넥타 매상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를 보였으며 제2/4분기 이후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러한 호조에 대해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가을 이후에도 PC나 반도체제조관련장치의 생산증가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너무 낙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증견전문메이커의 관계자는 말한다.

한편, 스위치에 대해서도 PC

주변기기와 이동체관련용의 수주 증가와 함께 FA분야의 회복이 금년 전반기의 호조요인이 되고 있다.

1~5월의 생산실적은 국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검출스위치나 조작스위치의 대폭적인 신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생산이전과 대만메이커의 공세에 당하고 있는 키보드 스위치는 격감하고 있으며, 또 7~9월 수주동향도 전년동월 대비 10% 내외의 하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내의 수주·생산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AV(음향·영상)기기용은 지금은 거의 해외생산 이전되어 세트메이커의 생산조정이 가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한 수주가 크게 흔들릴 것 같다.

## 6. 회로부품

「봄초부터 활발화한 수주는 최근에 와서 침체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필경 과잉재고에 의한 생산조정 of 견조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라는 견해가 많은 회로부품메이커에서 나오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의 각사에 있어서의 업적은 필경 증수증익을 계상하는 곳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체통신, PC 및 주변기기가 세계적으로 호조이고, 또 ASEAN지역과 중국

등의 AV(음향, 영상)기기의 생산도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동체통신 PC관련, 반도체 디바이스용을 비롯한 설비투자 증대, 아뮤즈먼트기기 등이 부품수요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각사는 '92년 이래, 적극적으로 수출주도로 신장하면서도 수주량의 증가와 사업의 재구축이 잘 어우러진 성과가 업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성 통계에 의하면, 금년 1~5월에 있어서의 수동부품의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4,840억원 수량베이스로는 대략 2자리 성장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품메이커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증견전문메이커까지 해외생산 이전을 가속화해 국내 사업체제를 내수지향형으로 Slim화한 곳도 있고, 수주량에 대해 생산이 못쫓아가는 상황이 표면화되어 국내 주요공장은 해외에 이전을 전개하고 있는 범용부품을 포함해 Full 생산이 계속되어 왔다.

각사에서는 「가격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수량베이스로 이렇게 바쁜 시기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동이 언제 도래하는가가 문제이다」라는 다소 근심어린 견해가 잠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우려가 최근 구체적으로 수주면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메이커는 적지않다.

회로부품업계가 하반기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트의 해외생산

이전과 내수동향이 서로 겹치는 것이다. 회로부품은 AV기구나 PC관련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세트의 해외생산이전이 더욱 진행되게 되면, 국내사업에의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휴대전화, 레이저, PHS와 이동체통신 및 어뮤즈먼트기기 등은 국내에서의 밝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회로부품에 있어 세트의 해외생산이전을 상회하는 상황이 국내에 등장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느 대형 콘텐서 메이커에서는 「수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업적이 좌우되는 체질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공장이 Full 가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수주동향에 따라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세트의 해외생산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별충하기 위해서는 국내수요가 활성화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사업을 신장시키는데는 이동체통신 등의 성장분야에서 어떻게 수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대형 변성기 메이커에서는 보고 있다.

국내시장의 신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이 활황을 띄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회로부품 각사의 해외 매상고 비율은 일제히 상승해 이미 해외 매상고가 국내의 그

것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의 부품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해외시장의 향방이 업적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해외생산시장을 증강하면서도 국내공장이 높은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여전히 수출규모는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회로부품 각사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구미에서는 이동체통신과 정보기기용의 수요가 호조이며, 또 ASEAN지역과 중국은 AV기기를 중심으로 PC관련 등 부품시장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AV기기의 현지 소비중대와 함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써 성장하고 있어, 일본의 부품업체가 아시아 중심의 사업체제를 강화, 확대하고 있는 것도 수궁이 간다.

이러한 아시아에 있어서의 부품의 수주상황이 최근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는 회로부품 메이커가 적지 않은데, 「수요에 맞춘 생산이 아니라, 생산이 상당히 앞서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고조정의 국면이 부품의 발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분석이다.

부품의 세계시장 속에서 아시아가 점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만큼, 부품메이커의 수주에 대한 인פק트는 크다. 특히 회로부품은 AV기

기에의 수요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수주감소는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회로부품메이커의 대부분은 아직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 이유로써 「AV기기를 중심으로 한 세트메이커의 아시아에서의 생산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소비확대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고 조정국면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부품의 발주에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대형메이커의 관계자는 말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저항기 메이커에서는 세트메이커의 아시아에서의 현지생산은 여전히 증산을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려는 메이커도 적지 않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의 해외생산이전이 더욱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품목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의 부품수요보다도 일본 국내시장의 향방이 우려된다고 분석하는 메이커도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도 해외주도의 신장을 기대하는 메이커가 많다.

칸사이계 기업인 京세라는 7~9월의 수주를 해외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고, 국내는 AV, PC관련의 이전으로 다시 축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무라다제작소도 정보통신, 자동

일본 국내 생산액과 수출액의 신장률

(전년동월비, %)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국내 생산액	104.9	108.1	106.5	103.2	101.3	104.7
수출액	111.4	127.9	123.3	118.3	108.1	117.9

차의 안전대책, 노이즈대책관련의 수요증가에 따라 4~6월의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톱은 PC기기, 이동체통신기기 용, AV기기, 자동차용의 수주가 늘어 6~7월의 국내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5~20% 증가하고 해외는 동 20% 증가를 상회하는 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마쓰시다 전자부품은 7~9월 미국경기의 침체에 따른 세트의 재고증가와 아시아에서의 세트생산의 급격한 다운을 우려해, 해외는 전년동기대비 10~15%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는 해외 이전에 의해 세트생산의 신장이 불투명한 점이 있어 동 3% 감소로 보고 있다.

1/4분기에 있어서의 해외매상고 비율은 회로부품계 메이커 17개사중에서 대략 5할에 해당하는

8개사가 50%를 넘고 있다.

해외시장의 향방이 업적을 크게 좌우하는 셈인데, 이동체통신과 정보기기용 등의 키 디바이스를 비롯해 설비산업형의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수출의 전개가 계속될 것이다.

금년 1~5월의 수주부품의 생산액은 전년동기 대비 불과 4.7% 증가에 지나지 않지만, 동기에 있어서의 수출액의 신장율은 동 17.9%를 확보하고 있어 고도기술을 갖는 부품의 해외수요에 대해서는 수출대응의 스타일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SEAN 지역, 중국을 무대로 현지생산을 강화 확충한다고 하는 도식에 변화는 없다.

특히 해외생산에 대해서는 현지 소비에의 대응과 함께 구미시장에 대한 다이렉트 수출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를 위해 범용부품에 머물지 않고 부품의 현지생산품목이 더욱 다채로와 질 것은 틀림없다. 이미 코일, 트랜스를 중심으로 볼륨, 바리콘,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피막저항기, 수정진동자 등 기종별로 해외생산비율이 5할을 초과하는 것도 적지 않다. 금후에도 일시적으로 현지의 수주가 침체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회로부품에 있어 한동안은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